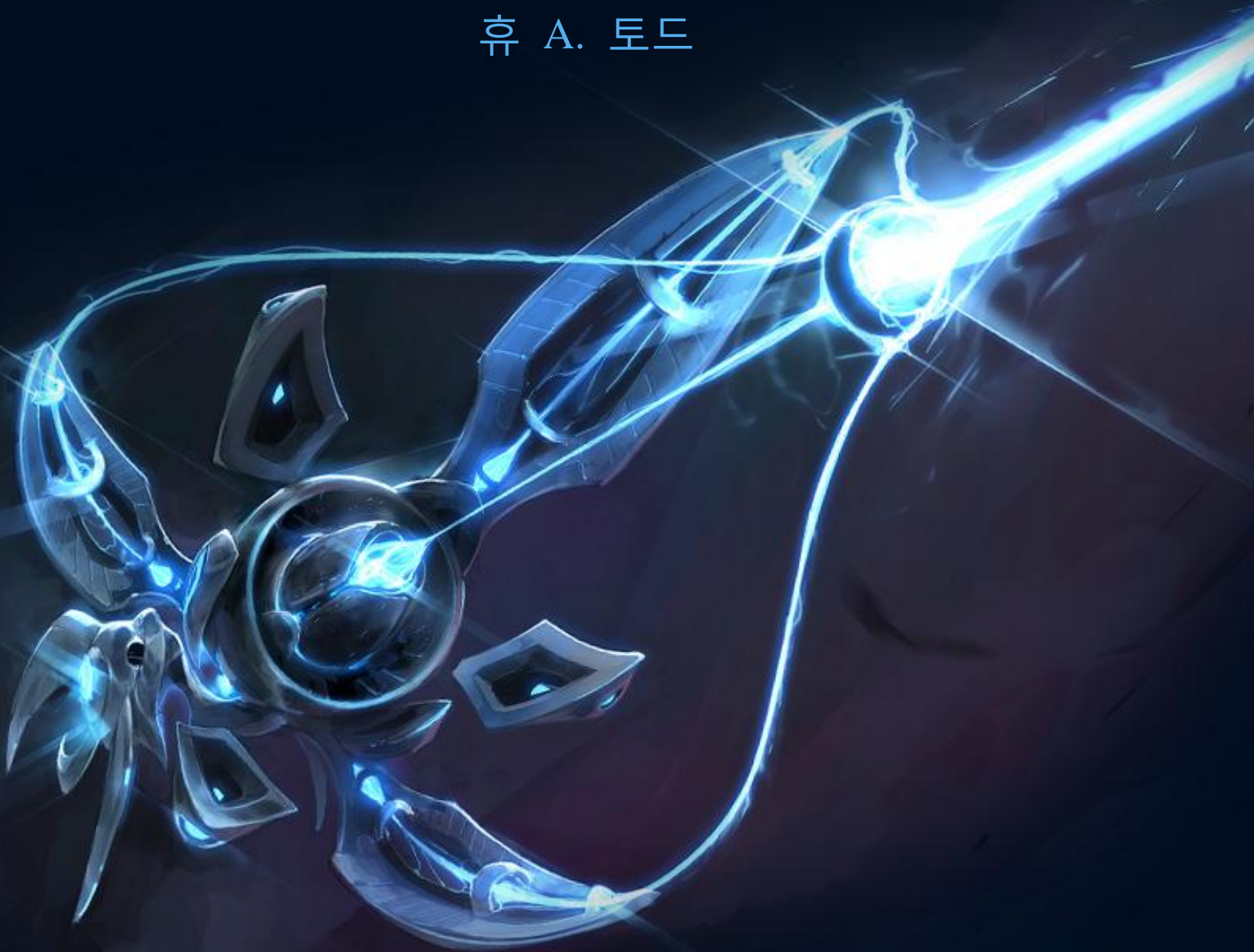


STARCRRAFT
HEART OF THE SWARM

공허의 렌즈

휴 A. 토드



공허의 렌즈

휴 A. 토드

순수의 형상 함교가 크게 떨렸다.

“보호막 유지 중!” 피해 통제 사관이 소리치자 그 사이오닉 음성이 전 승무원의 정신에 투영되어 들렸다.

“사령부에 공중 엄호를 요청하도록.” 페라논이 명령했다. 함교 승무원은 공통 형태의 텔레파시 언어로 칼라이 및 네라짐과의 교신을 돕도록 교육되어 있었다. 그는 프로토스가 건조한 최신예 전투함의 한 사령관으로서, 최근에 합일한 프로토스 세력들이 서로의 간극을 극복하고 원만히 협조하도록 도움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어둠의 시기엔 칼라를 따르는 세력도 거부하는 세력도, 생존을 위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페라논 자신은 각 세력의 재결합이 프로토스 전체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세와 함께 지도자로서의 빛나는 업적이 그가 *순수의 형상*의 사령관이라는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된 이유이리라. 페라논은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을 자랑스러이 여겼고, 또 그런 결정을 내린 지도부가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는 사령관석에 걸터앉은 채 감동에 찬 시선으로 함교를 바라보았다. 이전에 배속되었던 그 어떤 전투함에도 이렇게 거대한 함교는 없었다. 그리곤 공허 포격기를 프로토스가 만들어낸 전투함 중 가장 강력한 존재로 만든 기술을 살펴보며 줄지어 늘어선 입력장치에 집중했다. 이 입력장치들은 페라논을 원형으로 둘러싸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승무원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 사령관석 가까이에는 공허 포격기 선체 여러 부분의 결과가 요약된 정보를 볼 수 있는 반투명 홀로그래프 화면이 가득 나타나 있었다.

함교는 단지 효율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선체의 미려한 모습을 본떠 만들어 아름답기까지 했다. 페라논은 이 전투함을 설계한 프로토스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다. *순수의 형상*은 치명적인 무기치고는 우아한 모습이었다. 물론 칼라이와 네라짐의 협력 없었다면 이러한 전투함을 구상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힘을 모아 과학과 예술의 정점을 이뤄냈다.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중 지원이 오고 있습니다.” 통신 사관이 보고했다. 페라논은 칼라를 통해 승무원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함교 승무원을 모두 칼라이 출신에서 차출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도 서로의 느낌이나 생각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 전투함은 칼라이와 네라짐이 함께 제작했기에 각 세력의 승무원들을 모두 선택해야 했다. 이러한 합일로 *순수의 형상*은 더욱 강해지리라.

페라논은 허공에 뜬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안의 불사조가 공허 포격기를 괴롭히던 유탄리스크 무리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훌륭하군. 계속해서 공격지점까지 전속력으로 이동하도록.”

저그 병력의 방해가 사라지자 *순수의 형상*은 지정 위치에 신속히 도착했다.

“사령관님, 목표가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

페라논은 화면에서 일렬로 늘어선 울트라리스크가 황량한 언덕에서 아래쪽으로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을 응시했다. 울트라리스크의 성향에서부터 갑피의 정확한 구성 성분 등, 모든 상세 정보가 페라논 앞의 화면에 표시됐다.

“분광 광선을 가동하도록. 그리고 유동장 투영기 하나도 배치하고.” 페라논이 명령했다. *순수의 형상*은 함 내를 이동하는 에너지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무기가 가동되는 즉시 울트라리스크를 공격하라.”

진동은 일정한 음색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강해졌다. 중심부 수정에서 광전이 발생하면서 함교는 번쩍이는 에너지의 푸른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곤 공허 포격기의 앞부분에 있는 수정에서 분광 광선이 발사되어 지표면에 있는 형체를 강타했다.

페라논은 화면을 통해 울트라리스크가 분광 광선에 맞고 비틀거렸지만, 놀랍게도 상처 하나 없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령관님, 울트라리스크의 갑피가 너무 두껍습니다. 분광 광선으로는 뚫지 못하겠습니다.”

페라논은 정보를 다시 살폈지만, 기술병의 결론에 반박하지는 않았다.

그는 의자를 회전시켜 지휘소 뒤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함교 뒤편인 그곳엔 긴 의자가 있었다. 육중한 동력선이 의자 머리에서부터 퍼져 나가고 있었고, 뒤편의 투명하고 두꺼운 유리 너머에 있는 오색찬란한 핵은 마치 힘차게 끓어오르는 솥단지 같았다. 긴 의자에는 젊은 암흑 기사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프로토스 한 명이 그 옆에 서 있었다. 페라논은 잠깐 그 스승을 살펴봤다.

테로모스는 페라논이 아는 한 가장 나이가 많은 프로토스였다. 그의 옷차림은 페라논이 만났던 여느 젊은 네라짐과는 달랐다. 짧게 자른 정신감응 신경 다발을 덮은 멋스러운 머리띠의 모양조차도 고풍스럽기 그지없었다. 페라논은 임무를 처음 접했을 때 다른 네라짐에게 테로모스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모두가 옛 스승 테로모스에게 대단한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또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으로 삶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페라논은 젊은 네라짐에게 주의를 돌리곤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알사이, 두 번째 유동장 투영기를 가동시켜야 한다.”

누워 있던 젊은 암흑 기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옆에 서 있던 나이 든 스승의 텔레파시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내 제자는 아직 미흡하네. 두 번째 투영기를 다룰 정도로 충분히 훈련되어있지 않단 말일세.”

페라논은 나이 든 프로토스의 말을 경청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들이 공허 포격기의 힘을 다룰 때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배운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밑에는 아군 지상 병력을 궤멸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울트라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놈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투영기 하나로는 그 두꺼운 갑피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테로모스는 꽤 불쾌해하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두 번째 투영기를 사용하면 저그를 격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승무원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지 않나.”

페라논이 대꾸하기 전에 알사이가 막아섰다. “사령관님, 두 번째 투영기를 작동하겠습니다. 계속 제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암흑 기사는 칼라에 소속되지 않는데도 페라논은 그 젊은 네라짐의 말 속에서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테로모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다. “나는 경고했네.”

페라논은 앞쪽으로 의자를 돌렸다.

“두 번째 유동장 투영기를 가동하도록. 분광 광선은 울트라리스크 쪽으로 계속 향하게 해야 한다.”

에너지가 솟구쳐올라 중심부 수정에서 처음으로 합쳐지자 선체를 따라 떨리던 진동음의 음색이 바뀌었다. 울트라리스크는 다시 한번 비틀거렸지만, 이번에는 분광 광선이 그 두터운 갑피를 녹이기 시작했다. 그리곤 두 조각으로 갈라났다.

“남아 있는 울트라리스크를 조준하도록”

분광 광선이 발사되자 저그의 몸체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저그 군대의 일원으로 태어났던 스물 네 마리의 거대한 야수들은 속절없이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순수의 형상*은 마지막 한 마리의 울트라리스크가 새카맣게 탄 잔해가 되어 잠잠해질 때까지 전장을 살살이 뒤졌다.

“분광 광선 작동 중지.” 페라논이 명령했다.

*순수의 형상*을 흔들던 진동이 잦아들었고, 격렬하게 번쩍이던 에너지의 광채가 사라지며 함교가 어두워졌다. 페라논은 젊은 암흑 기사를 칭찬하려고 돌아섰지만, 눈앞에 비친 모습을 보곤 우뚝 멈춰 섰다. 알사이는 쓰러진 채 움직임이 없었다.

테로모스는 말없이 쓰러진 암흑 기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승리했네, 사령관. 희생자는 승무원 단 한 명뿐이군. 나는 새로운 제자를 택해야겠네.”

나이 든 암흑 기사가 잔걸음으로 자리를 뜨자 함교가 고요해졌다.



테로모스의 객실 문 앞에선 아무런 답이 없었지만, 페라논은 어쨌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이 빈 공간만 덩그러니 있었다. 테로모스는 명상 자세로 등을 돌린 채 객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벽 한쪽에서는 공허 포격기의 심장부인 분광 핵이 보였다. 눈부신 에너지가 작은 객실 벽 전체를 따라 일정한 형상을 그리며 흐르고 있었다. 이 고요함을 맞이한 페라논은

예전에 가보았던 젤나가 사원이 떠올랐다. 객실에서 사원에서 느꼈던 고대의 평화로움이 느껴졌지만, 지금 그 평화로운 느낌은 고요히 앉아 있는 암흑 기사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알사이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험도 불사할 정도로 용맹한 암흑 기사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기억에 남을 겁니다.” 페라논의 말은 방안의 고요함에 묻혔다. 고요함이 너무 길어지자 페라논은 나이 든 네라짐이 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테로모스가 텔레파시 음성으로 으르렁거리듯 말하기 시작했다.

“희생.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그때 저그를 격퇴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사들이 나중에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겠습니까.”

“저그와 교전한 걸로 왈가왈부하려는 건 절대로 아닐세. 하지만 알사이는 준비가 충분치 않았네. 고작 몇 주밖에 훈련하지 않았고, 아직 이 전투함에서 생성되는 공허 에너지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훈련 과정조차도 거치지 못했단 말일세.”

“알사이는 자신이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 동안 유동장 투영기를 성공적으로 제어했습니다.”

테로모스의 냉담한 웃음이 방 전체를 따라 자갈이 부딪히듯 퍼져 나갔다. 그는 등을 돌려 페라논의 시선과 마주했다. “열망에 가득 찬 젊은 암흑 기사들이라면, 모두 전장 나타난 두려운 적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맞설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네. 사령관, 나는 자네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암흑 기사를 훈련시켜왔지. 거의 암흑 기사의 역사와도 같은 긴 시간 동안 말일세. 훈련을 마치지도 않은 암흑 기사를 몰아붙이면 제자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걸세. 바로 오늘같이. 내가 샤쿠라스로 가서 네라짐을 가르쳐야겠군. 자네가 여기서 제자들을 죽이는 걸 돕기보단 말이야. 여기서 이려고 있는 이유는 단지 지도부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해서였을 뿐이네.”

“이 함대에는 다른 공허 포격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암흑 기사도 공허의 렌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그걸 해내고 있고 말입니다. 당신도 공허 포격기에 필요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경험이 풍부한 암흑 기사는 많지.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불건전한 창조물의 거대한 힘을 다룰 정도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이들은 드물거든. 내가 공허 에너지를 다루든 다루지 않든, 그건 나 자신이 선택할 걸세. 나는 가르침을 주겠네. 그것으로도 충분해. 이제 명상을 해야 하니 나가주게나.”

테로모스는 사령관에게서 등을 돌리곤 다시 한 번 명상 자세를 취했다.

페라논은 나이 든 네라짐을 잠시 바라보곤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리곤 출입구에서 멈춰 섰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새로운 제자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안정을 취하게 한 뒤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로모스가 답이 없자 페라논은 더 잠잠한 텔레파시 음성으로 계속 말을 이었다. “테로모스, 전 당신의 적도, 또 알사이의 적도 아닙니다. 우리 두 세력 모두에게 최선의 것을 원할 뿐입니다. 프로토스 종족의 구원에 보탬이 되고 싶은 겁니다.”

테로모스의 말이 가까스로 객실의 정적을 깼다. “알사이를 죽인 건 저그가 아니라네, 사령관.”

페라논은 대꾸하지 않았다.



“공허는 칼라와는 다르다. 우리를 한데 모아 따뜻한 느낌으로 감싸며 이어주지는 않아. 물론 스스로 나서서 그 힘을 내어주지도 않는다. 암흑 기사는 강한 의지와 훈련을 통해 공허를 집요하게 추적해 그 힘을 이끌어내야 한다.” 테로모스는 편한 자세로 앉아 새 제자의 답을 기다렸다. 분광 핵에서는 빛이 끊임없이 바뀌며 번쩍였고, 그 빛으로 생긴 그림자는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객실 전체에 일렁였다.

샤라스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스승님,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허의 길을 처음 배울 때 지도서에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썼던 내용을 아직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니 기분이 좋군.” 나이 든 네라짐은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그림자 걷기를 통과했구나.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올 수 없었을 테니.”

샤라스는 그것이 질문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테로모스가 계속 말을 이었다 “공허 포격기는 아이어와 샤쿠라스의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첫 전투함이다. 칼라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모아 위상 수정을 거쳐 집중시킨 뒤 공허의 강대한 힘으로 결합시키지. 사이오닉 에너지는 분광 핵으로 모여서 유동장 투영기로 증폭된다. 투영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전광은 분광 광선의 근원인 중심부 수정으로 흘러가지. 하지만 우리 형제들의 기술력이 칼라의 힘을 아무리 조정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해도, 공허의 강대한 힘을 순치하려면 암흑 기사가 정신 집중을 통해 그 힘을 유용한 형태로 바꿔줘야만 한다. 수련을 거친 네라짐의 마음가짐이 없다면 공허 포격기가 생성한 힘이 너무 거칠어져 제어 범위를 견잡을 수 없이 벗어나 버리니까. 너는 공허의 렌즈가 되어야만 한다. 공허의 본질에 관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광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지. 하지만 네가 이 길을 따를 생각이라면 내가 이끌어주마.”

그는 잠시 멈추고 제자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살펴보았다. “시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그간 배운 것을 내게 보여다오.”

샤라스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다. 테로모스는 처음엔 아무런 변화도 볼 수 없었지만, 곧 분광 핵에서 투영된 빛과 별개로 방 안의 그림자 하나하나가 각자 다른 파동을 띠며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따리를 틀며 휘감기더니 서로 이어지며 샤라스 몸 주변에 둥근 원을 만들어냈다. 그리곤 짙은 구름 촉수가 가느다란 안개같이 빠져 나와 바닥 위로 흘러 그녀의 다리와 팔을 휘감았다. 샤라스가 한 손을 들자 덩굴이 그녀의 움직임을 흉내 내며 몸 주변에서 어우러졌다. 이 현란한 춤은 젊은 네라짐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자 멈췄다. 공허는 샤라스가 마치 어둠의 망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듯 그녀를 집어삼켰고, 그 어둠은 이제 단순히 빛이 없는 것이 아닌 외피 물질로 변해 테로모스의 눈앞에서 샤라스를 감쌌다.

그러나 나이 든 프로토스는 그것을 시선으로만 쫓지 않았다. 테로모스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 샤라스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려는 마지막 순간을 감지해 한쪽 손만 들어 올렸다.

“훌륭하구나, 제자여. 제어력과 교묘함, 즉흥성... 이런 것들은 성실히 훈련한 암흑 기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지. 너의 의지와 수행,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겠다.”

샤라스는 테로모스가 자신의 손을 놓자 그의 앞에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제 움직임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테로모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는 않았지. 하지만 공허 그 자체를 지켜봤던 자라면 일반적으로는 희미했던 모든 것들이 명료해진단다. 그렇다고는 해도, 네가 인내심을 가지고 공허 에너지를 더욱 강력하게 품었더라면 아무리 나라도 알아채지 못했을 거야.”

나이 든 스승은 제자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며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너를 보니 오래 전에 함께 공부하던 동료가 떠오르는구나. 너와 비슷하게 인내심이 부족했지만, 총명하고 열정이 가득했지. 그녀가 갖춰던 기술과 동등한 수준이 된다면 정말 강대해진 네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다. 하지만 이 길을 걸을 때는 조심해야만 한다. 힘을 더 빨리 받아들일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지니까. 천천히 걷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네 능력의 정점에 도달해야만 한다.”

테로모스는 일어나서 샤라스에게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 하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공허 에너지에 몸을 열고 의지를 집중할 수 있는 간단한 수련부터 시작하자꾸나.”

샤라스는 스승의 움직임을 따라 했고, 둘은 함께 수련을 시작했다.



“저그의 주 기지로 계속 이동하라. 공격 가능한 목표에는 모두 발포하도록. 아군의 지상 병력과 가까운 목표물을 최우선으로 공격한다.” 페라논이 명령했다.

순수의 형상이 발사한 분광 광선은 그 아래에 있는 저그 군대에 죽음을 선사했다. 무기는 일정한 발사음을 유지하며 저글링 무리를 갈기갈기 찢어낸 뒤, 발사구를 맹독충 무리로 돌렸다. 페라논은

화면을 통해 프로토스 병력이 앞으로 나아가며 공허 포격기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던 저글링 몇 마리를 손쉽게 제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령관님, 바로 밑에서 포자 측수 세 마리가 변이되고 있습니다.”

페라논은 관련 정보를 불러온 뒤 응답했다. “사령부에 즉시 알리도록. 우리가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기 전에 완성되면 위험하다.”

프로토스 군대 간의 전장 통신이 효율적으로 이뤄졌고, 곧 광전사 부대가 도착했다. 광전사는 변이 중이던 포자 측수를 신속하게 해치웠다. *순수의 형상*의 분광 광선은 저그가 이곳에서 추가 공격을 더 할 수 없도록 주변의 점막을 불태워버렸다.

페라논은 항해장에게 돌아섰다. “주 군락으로 이동한 뒤 그곳을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분광 광선 작동이 멈추고 엔진이 가동되자 진동음이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전투함의 상태에 만족한 사령관은 새로 온 제자가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의자를 돌렸다.

샤라스는 기다란 집중용 의자에 누워 있었다. 페라논은 그녀의 몸에서 약간의 긴장을 느꼈지만, 칼라의 일원이 아니기에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는 완벽히 파악할 수 없었다. 테로모스는 몸을 굽혀 샤라스의 능력에 관해 논의를 나누며 지도해주고 있었다. 새로운 제자는 아직까지는 꽤 인상적이었다. 샤라스는 공허의 렌즈라는 자리에 요구되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 같았다. 공허 포격기가 최대 출력으로 발생시킨 공허 에너지를 완벽하게 다뤘던 이전의 제자보다도 훨씬 빨랐다. 페라논은 나이 든 암흑 기사가 제자를 잘 지도하고 있다고 믿으며 다시 전투로 주의를 집중했다.

*순수의 형상*이 저그 침략군의 심장부로 곧장 날아가는 동안 프로토스 지상군은 외곽에 위치한 구조물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다. 공허 포격기가 군락을 파괴하면 나머지 저그 병력들은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령관님, 주 군락 구역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유동장 투영기를 가동하도록. 군락의 중앙 구역을 집중 공격하라.”

분광 광선의 독특한 음색으로 함교가 진동했다. 페라논은 화면을 신중하게 응시했다. 발사된 광선은 거대한 군락의 생체 조직을 손쉽게 찢어버렸다. 그러자 군락의 표피가 공격에 반응이라도 하듯 바뀌기 시작했고, 군락 전반에 걸쳐 뾰족한 돌출물이 있는 뼈판이 드러났다. 분광 광선은 이 새로운 방어층을 뚫지 못한 채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흩어졌다.

“사령관님, 근처 점막 위에 있는 저 고치들 속에서 히드라리스크가 자라는 걸 센서로 확인했습니다.”

페라논은 화면에 쏟아지는 정보를 검토했다. 그 정보는 기술병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이토록 많은 히드라리스크가 변이되면, *순수의 형상*이 군락지를 파괴할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눈깜짝할 새에 공격받게 될 것이다.

사령관은 뒤에 있는 암흑 기사에게 돌아섰다.

“공허의 렌즈 샤라스. 지금 두 번째 유동장 투영기를 가동시켜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피해야 한다. 증가된 공허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겠나?”

제자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스승이 끼어들었다. “계속 이럴 수는 없네, 사령관. 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거대한 공허 에너지를 너무나도 이른 시기에 다루도록 강요해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나. 알아서 일을 생각해보게.”

페라논은 테로모스의 초조함을 자제시키려고 애썼다. “다른 승무원들이 공포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샤라스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그 애벌레가 알을 까고 나오면 이 전투함뿐만이 아니라 진격 중인 우리 전사들도 공격할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투영기도 역부족인 것으로 판명 나고, 샤라스의 애꿎은 목숨만 위협받겠지.” 테로모스가 되쏘아 붙였다.

페라논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장로 테로모스, 사령관은 접니다. 그리고 위기를 판단하는 것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저란 말입니다!”

나이 든 암흑 기사가 대꾸하기 전에 샤라스가 말했다. 그녀의 텔레파시 음성은 분노로 날이 서 있었다. “모두 그만! 스승님,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사령관님, 두 번째 투영기를 작동시켜주십시오.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테로모스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샤라스에게 반박하지는 않았다.

페라논은 뒤돌아서 명령을 내렸다. 선체를 따라 울리던 공명음이 즉각 고음으로 변했고, 그에 따라 함교가 진동했다. 에너지 줄기가 균락을 감싼 두터운 갑피를 녹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수의 형상*이 공격했던 목표물은 생체조직이 불타오르며 피범벅이 되어 폭발했다. 전투함 안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거대한 폭발이었다.

페라논은 균락지가 파괴되고 애벌레들이 소멸한 것을 확인한 즉시 분광 광선 작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곤 뒤에 있는 네라짐 두 명을 돌아봤다. 샤라스는 비록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살아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으며, 강한 충격으로 온몸이 멍으로 얼룩졌지만 자기 힘으로 중심을 유지한 채 서 있었다.

도박은 성공이었다.

페라논은 의자를 앞으로 돌렸다. "항해장, 기지로 돌아간다."



페라논이 나이 든 네라짐을 객실에서 찾았을 때, 테로모스는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테로모스가 명상과 교육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다. 테로모스가 말을 꺼내는지 보려고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 나이 든 프로토스는 페라논을 한껏 무시하는 듯했다.

"함교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사과 드리러 왔습니다."

테로모스가 명상 자세를 유지한 채 말했다. "상관없네. 자네는 샤라스의 목숨으로 도박을 한 것이었고, 또 자네에게 유리하게 끝났으니까."

"상관있습니다, 테로모스. 전 제 명령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알사이의 죽음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저는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무모한 생각으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테로모스는 계속 명상 자세를 유지했다. “우리는 전쟁 중일세. 모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지. 내 제자를 포함해서 말일세.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네. 그것이 우주의 순리지. 나는 그저 낭비하는 것이 싫을 뿐일세.”

페라논은 큰 걸음으로 객실 깊숙이 들어가 테로모스의 시선 범위 안에 머물렀다. “오랜 세월 동안 젊은 프로토스를 가르치신 분이데도 죽음에 관해서는 정말 무심하게 말씀하시는군요.”

나이 든 네라짐은 고개를 돌려 사령관의 시선과 마주했다. “자네는 혼란의 시기에 프로토스를 지휘하고 있지. 그러니 예전에도 전우가 공허의 품에서 죽음을 맞는 걸 본 적이 있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뒤엔 이름을 읊어줬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희생을 기렸습니다.”

페라논은 나이 든 프로토스의 얼굴에 감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사령관, 내가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네. 우리 네라짐은 칼라이처럼 감정을 표출하진 않거든. 수 세기 동안, 나는 수도 없는 죽음을 목격했네.”

페라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다른 네라짐을 많이 만나봤고, 그들이 칼라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느 프로토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면 생명의 손실에 더 민감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지. 하지만 사령관, 그건 자네가 상관할 일은 아닐세.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면 고맙겠군.”

“승무원은 제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승무원의 정신 및 육체에 대한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도 저의 의무고요.”

“사령관, 내 정신 건강에 관해서는 안심해도 괜찮을 걸세. 애도를 해도 내가 알아서 하고, 또 자네가 돌아다니지 않을 때 하겠네.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나?”

페라논은 자신과 네라짐 승무원과의 접점이 충분치 않은 것에 실망했다. 그는 테로모스가 마음속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칼라를 통해 정신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사이오닉 연결 고리 없이는 이 나이 든 프로토스를 도울 방법을 알 길이 없었다.

페라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언젠든 제게 오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면요."

테로모스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명상을 다시 시작할 뿐이었다. 페라논이 나가자 적막이 방을 채웠다.



테로모스는 객실 한가운데에 고요히 앉은 채로, 말을 꺼내기에 앞서 샤라스의 움직임이 자신의 명상 동작과 일치할 때까지 기다렸다. "오늘 아주 훌륭했다. 투영기 두 개를 제어하게 되면 더 힘들어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도전에 맞서 네 능력을 잘 발휘했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허의 힘에 정통했다고 생각하진 말거라. 공허 포격기가 최고 출력으로 분광 광선을 발사할 때 그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암흑 기사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어떤 암흑 기사는 공허의 그 순수한 에너지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해 죽기까지 한단다."

샤라스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꾸하진 않았다.

테로모스는 고개를 저었다. "공허 에너지를 분노로 제어했더구나. 공허 에너지를 제어하는 너의 그 힘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지. 잠깐이라면 문제없겠지만, 결국 너의 그 격한 감정은 불안정해질 거다."

테로모스는 제자를 살피었다. "다른 걸 수련해보자구나. 양손 사이에 공허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보거라."

샤라스는 양팔을 들어 올려 어깨 너비로 벌렸다. 정신을 집중하자 가느다란 어둠의 끈이 왼손의 손가락 사이를 휘돌았다. 그 끈은 일정한 한계 질량까지 뭉치더니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곤 양 손바닥 사이에서 덩굴 모양을 띤 검은색 가닥이 좌우로 흐르며, 한 손에서 나타나고 다른 한 손으로 사라졌다.

테로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더 작은 가닥으로 나눠서 밧줄처럼 엮어보거라."

샤라스가 이마를 찡그렸다. 어두운 공허 에너지의 끈은 여러 가닥의 덩굴 모양으로 더욱 가느다랗게 갈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같은 박자로 고동쳤다. 새로 만들어진 띠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더 넓었으며, 가닥들도 서로 엮여 흘렀다.

“적당하군. 그걸 마음속에 잘 담아두거라. 밧줄은 강하단다. 네 집중력이 그것을 지탱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을 거야.”

더욱 촘촘해진 에너지는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이제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보자꾸나. 오른손에서 에너지를 흘려 보내 다른 손에서 소멸시켜보거라.”

샤라스는 테로모스가 말한 대로 해보려고 애썼다. 촘촘한 에너지의 끈이 천천히 느슨해졌다. 그리곤 에너지의 흐름이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지만, 움직임이 고르지 않고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테로모스는 샤라스의 손을 가리켰다. “아니, 이렇게...” 그러다가 샤라스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비치자 멈췄다. 공허 에너지의 끈은 즉시 팽팽해졌고, 더욱 고르게 흘렀다. 그 흐름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욱 강렬했다.

“훌륭하구나.” 경의에 찬 목소리로 테로모스가 말했다.

샤라스가 공허 에너지를 방출시켜 덩굴 모양을 사라지게 하자 자랑스러운 듯 얼굴이 상기됐다.

“샤라스, 다시 말하지만 이해력이 정말 빠르구나. 네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전의 그 어떤 제자보다도 빠르고 완벽히 습득했다. 하지만 주의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구나. 어떤 순간에는 그 능력이 유용하겠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단다. 그 능력에만 의지해 수련을 게을리한다면 공허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테로모스의 제자가 가르침을 받는 객실엔 고요함이 흘렀다.

마침내 샤라스가 입을 열었다. “이 정도의 공허 에너지를 혼자 다루는 것이 위험하다면, 암흑 기사 두 명이 동시에 다루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는 과정 자체에서 위험이 생긴다.” 그제야 테로모스가 언짢은 듯 보였다.

그는 일어나서 멀리 떨어진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이야기는 수 세기 동안 하지 않았지. 하지만 너는 그녀를 너무도 많이 닮았구나.”

테로모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젊었던 시절, 네라짐은 그때도 공허 에너지에 관한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 공허 에너지의 다양한 쓰임새와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면서 말이다. 공허의 흐름을 따르며 여러 해 동안 명상에 빠져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지.”

“나라자와 나는 수련 기간 동안 우정이 돈독했단다. 그림자 걷기까지도 함께 통과했을 정도니까. 성향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지. 내가 무뎠다면, 그녀는 기민했고, 또 내가 규칙적이었다면 그녀는 변덕스러웠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깨달아 정답에 한 걸음 앞서 도달했지. 그 시기의 네라짐들은 특히나 독립적이었고, 단독으로 수련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나라자와 나는 서로 잘 보완해줬단다. 그래서 둘이 함께 노력해 혼자 수련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뤄냈지. 내 연구는 나라자가 공허에 자신의 정신을 더 멀리 내던졌을 때 줄을 고정할 수 있는 바위가 돼주었지”.

“그런데 우리의 연구는 위험한 영역에 접어들게 되었다. 원래 짧은 수명을 가진 암흑 집정관보다도 훨씬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암흑 집정관을 탄생시킬 기술을 발견한 것이었지. 그 당시에 암흑 집정관을 만들어내는 건 금기 사항이었단다. 그 존재가 휘두르는 힘이 엄청났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 네라짐들은 규율을 어기는 걸 두려워하는 법이 없었지. 나라자는 이 기술해 심취해 더욱 연구를 밀어붙였다. 그리곤 마침내 변환 의식을 실행할 계획을 세웠지.”

“나는 그녀의 충명함에 고무되어 그 계획을 따랐다. 냉정한 논리와 헌신으로 어떤 난관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지.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 의식을 시작했을 때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단다. 나 자신을 잃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나라자와 나 둘 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찼지. 그래서 의식을 중지시켜 나라자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에 격분해 의식을 계속 진행했단다. 나 때문에 그녀 자신이 뒤쳐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지. 나라자는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거대한 힘을 얻었고, 그 힘은 그녀를 집어삼켜 버렸단다. 그

뒤로 나는 슬픔과 낙심에 빠져 다시는 암흑의 힘을 품지 않을 것이며, 그대신 다른 이들이 그 힘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리라 다짐했단다.”

샤라스가 테로모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정적이 감돌았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샤라스였다. “저는 스승님이 나라자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녀가 스승님에게 실망을 안긴 것 같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라자는 죽었고, 나는 구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젠 네가 나라자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칠 수는 있단다.”

다시 한 번 객실이 고요해졌다. 분광 핵에서 번쩍이며 반사되는 빛이 느릿느릿한 파동으로 객실 벽에 스멀스멀 기어올라왔다.

“스승님, 어떤...” 갑자기 격렬한 진동이 전투함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샤라스의 질문을 가로막았다. 곧이어 전투 경보가 울렸고, 테로모스와 샤라스는 서둘러 지정 위치로 이동했다.



두 암흑 기사가 돌아왔을 때 함교는 혼돈에 빠져 있었다.

“저그가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상 병력이 방어하고 있지만, 적군은 계속 진격 중입니다. 3 번과 4 번, 그리고 5 번 수정탑이 붕괴되었습니다.” 승무원이 소리쳤다.

샤라스는 집중용 의자로 뛰어갔고, 테로모스는 기계 장치를 조작해 그녀를 도왔다.

페라논은 테로모스와 샤라스가 온 것을 알고는 짧고 빠른 속도로 명령을 내뱉었다. “분광 광선 가동. 유동장 투영기는 현재 한 대만 사용하도록. 목표물을 모두 식별하라. 수정탑을 공격하는 저그를 최우선 공격 목표로 지정하고, 그 다음 지상 병력을 공격하는 저그를 지정하도록. 뮤탈리스크 출몰에 주의하라.”

함교 승무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페라논의 명령에 따랐다. 분광 광선의 익숙한 음색이 깊게 웅웅거리며 커져갔다. 페라논은 화면을 통해 분광 광선이 끝 모를 듯 이어지는 저그의 물결을 막기 위해 놈들의 살을 저며내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분광 광선의 위력은 강력했다. 그렇지만 저그를 대파하지 못한 채 공격 속도만 늦출 뿐이었다. 공허 포격기가 저그 한 마리를 목표로 지정해

공격하면, 그 저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을 버텨내다 죽고, 그 사이에 두 마리가 다시 나타나 빈 자리를 결사적으로 메웠다.

프로토스는 용맹하게 위치를 방어했지만, 서서히 제압당하고 있었다.

페라논은 암흑 기사에게 요청했다.

“적이 너무 많아. 두 번째 유동장 투영기를 가동해야겠어.”

페라논은 또 설전을 벌일 것을 각오했지만, 테로모스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샤라스 역시 긴장을 풀고 평온함을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사령관은 전투로 주의를 돌렸다. “두 번째 유동장 투영기를 가동하도록. 계속해서 우선 공격 목표를 지정하라.”

무기의 음색이 변했고, 에너지가 더욱 증가한 분광 광선이 뿜어져 나갔다. 이번엔 저그의 방어선이 그 강력한 에너지를 버텨내지 못했다. 또한 저그 병사들은 땅 위로 솟아오르자마자 불타올라버렸다. 프로토스 지상군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우리 군주 부대가 접근 중입니다.”

페라논은 승무원이 말한 부분과 관련된 화면을 불러와 적 공격 부대에 관한 정보를 살폈다. 우리 군주 부대는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거대한 괴물들이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목표물을 향해 고요히 이동했다. 놈들은 프로토스의 기지 방어를 위해 배치된 광자포에 점액으로 뒤덮인 공생체를 내뿜어댔다. 광자포는 저그 공격대 몇 마리에 피해도 못 주고 파괴되어버렸다.

“우리 군주에겐 방공 능력이 없다. 이동해서 교전하도록. 사거리 내에 진입 즉시 공격하라.”

순수의 형상이 엔진을 웅웅거리며 가오리 같은 생물체들의 전열로 향했다.

다시 한 번 분광 광선이 발사되었고, 저그의 두터운 갑피와 이빨, 그리고 발톱을 손쉽게 박살 냈다. 페라논은 정보를 면밀히 분석했다. 우리 군주가 아무리 공허 포격기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프로토스 기지의 심장부인 연결체에 도달할 때까지 전부 제거하지는 못할 것 같았다. 우리 군주의 수가 너무 많아서였다.

페라논은 집중용 의자로 시선을 돌렸다.

“세 번째 유동장 투영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지를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더욱 증가시키지 않으면 저그에게 연결체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 공습 때 우위를 차지했던 게 모두 수포가 될 겁니다.”

테로모스는 대꾸하지 않고 샤라스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집중한 채 눈썹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짧게 끄덕였다.

페라논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뱉었다. “세 번째 유동장 투영기를 가동하라!”

승무원 모두 그 명령의 결과를 즉각 느꼈다. 전투함을 가득 채운 음색이 더욱더 높이 치솟으며 온 몸을 뒤흔들었다. 분광 광선이 발사되자 그 앞에 있는 무리 군주들을 모조리 불타버렸다. 놈들의 갑피가 공허 포격기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자 야수들을 연이어 불타는 잿더미로 변했다.

갑자기 분광 광선의 상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처로운 흐느낌이 전투함의 진동에 뒤섞였다. 페라논은 뒤에서 악을 쓰는 소리를 들은 의자를 돌렸다.

샤라스는 더 이상 의자에 편안히 누워 있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온몸을 비틀었다. 어두운 보라색 줄기가 머리와 케이블에서 번쩍거리며 몸 전체를 정신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테로모스는 샤라스 위로 몸을 구부리곤 소리쳤다. “공허의 힘을 버텨내야 한다! 너의 의지로 이끌거라! 반드시 제어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너를 집어삼킬 거야.”

페라논은 샤라스가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응축된 암흑과 유사한 격류가 그녀 주변에 새로 흘렀다. 그 격류는 눈부시게 번쩍이는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러자 샤라스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못 참겠어요! 제어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스승님, 제발 도와주세요.”

테로모스는 페라논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적의 공격 병력이 파괴될 까지 분광 광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테로모스는 제자에게 주의를 돌린 뒤 결연한 몸짓으로 그녀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몸부림치던 에너지는 그 즉시 테로모스도 휘감아버렸다. 하지만 테로모스를 휘감은 에너지는 느리고 우아한 형태로 움직였다. 두 암흑 기사 사이와 주변에서 덩굴손이 쏟아져 나와 차분하게 늘어나며 일정한 박자로 고동쳤다. 그러자 천둥 같던 분광 광선의 음색이 안정적으로 변했다.

페라논은 승무원의 보고를 들었다. “목표물이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는 의자를 앞으로 돌려 명령했다. “즉시 투영기 작동을 중지하라!”

분광 광선의 잡음이 사라지진 건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함교는 조용해지지 않았다. 집중용 의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뒤돌아본 페라논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샤라스는 일어나서 테레모스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둘은 서로를 쏘아보고 있었다. 암흑의 줄기는 계속해서 스승과 제자에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공허 에너지가 밝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두 네라짐의 눈이 더욱 강하게 빛나자 붉은 화염의 가느다란 줄기가 두 암흑 기사의 팔 전체를 격렬하게 휘감았다.

테로모스가 소리쳤다. “버텨내야 한다! 공허의 힘이 우리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안다. 공허의 이끌려 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버텨내야 해!”

샤라스가 다시 소리쳤다. 그녀의 사이오닉 음성은 이전과는 음색이 달라진 것 같았다. “공허가 나를 부르고 있어! 공허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우리는 함께 더욱 강력해질 수 있어. 함께 광대한 공허의 힘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어.”

테레모스는 머리를 뒤흔들며 자신과 샤라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연결을 부서뜨리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 너도 죽겠지. 공허를 그냥 보내주렴. 온전한 육체의 형태로 돌아가 감정을 억제하거라.”

줄기가 천천히 사라지고 암흑이 잦아들었다. 테로모스가 한 말이 샤라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임이 확실했다.

곧 기진맥진한 두 네라짐만 덩그러니 남았다.



샤라스가 자신의 스승을 방문하러 가자, 그는 언제나처럼 명상 자세를 취한 채 앉아 고요함으로 방을 채우고 있었다.

“아주 훌륭했다, 제자여. 그만큼의 경험으로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암흑 기사는 흔치 않다.”

샤라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죠. 제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고, 스승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하려 하셨을 때 스승님의 목숨까지 잃게 만들 뻔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테레모스가 한숨을 내쉬었다. “너 자신이나 내 가르침을 부끄럽게 만든 건 없다. 네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나라자가 그랬던 것처럼, 걷기도 전에 날아오르려고 했을 뿐이지. 인내가 부족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것에서 교훈을 배우면 되는 것이지. 마지막엔 네 눈앞에 있던 유혹을 뿌리쳤으니, 그런 의미에서 너는 성공한 것이란다.”

샤라스는 테로모스를 올려다봤다. “그런데 스승님, 어떻게 하죠? 오랜 세월을 지켜오셨는데, 결국 공허 에너지를 사용하셨잖아요. 저 때문에 맹세를 깨신 건가요?”

“맹세는 나 스스로 깬 거란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할 거야. 이전 변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나의 고통을 떨쳐내는 데 네가 많은 도움을 줬구나.”

샤라스는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로모스가 일어나서 다시 인사했다. “너 또한 네게 가르침을 줘서 고맙다. 이전 공허의 힘을 어디서 놓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방지할지 의논해 보자구나.”



방문의 벨이 울리자 페라논은 책상에서 돌아와 대답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곤 테로모스가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이 든 프로토스는 방 안으로 몇 발짝 걸어 들어 오더니 인사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네, 페라논.”

페라논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쳤다. “뭐가요? 당신과 샤라스를 모두 죽일 뻔한 일 말입니까?”

“아닐세. 자네의 인내심과 배려심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이네. 내가 일을 어렵게 만들었네. 비록 내가 스승이기는 해도, 지난 며칠간 많은 것을 배웠네. 샤라스를 다 가르치고 난 뒤, 자네가 허락한다면 *순수의 형상*을 위해 공허의 렌즈 임무를 맡으며 이 전투함에 남고 싶네.”

페라논은 정중한 인사로 테라모스의 말을 받아들였다. “공허의 렌즈 임무뿐만 아니라 스승으로서 우리 전투함의 일원이 되어도 환영받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부분이 많을 테니까요.”

“자네 승무원들은 효율적이지. 하지만 내 제자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 할 걸세.

페라논은 나이 든 네라짐이 *순수의 형상*에 탑승한 이래 최초로 농담을 던졌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